

From Amazon to Olympic 은 광주광역시의 바림, 삿포로시의 삿포로 텐진야마 아트 스튜디오가 공동기획한 전시로, 12 월 10 일 부터 28 일까지 두 장소에서 동시에 열립니다. 참여 작가들은 바림과 텐진야마 아트 스튜디오에 각각 (연관된 그러나) 다른 작품을 전시하고, 이 두 전시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멈추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쇼핑몰 아마존은 더욱 부단히 움직입니다. 아마존의 로고를 자세히 보면, A 와 Z 사이에 화살표가 있습니다. A 부터 Z 까지 모든 것을 판다는 뜻에, 덧붙여 아마존 강을 보는 서구의 시선, 거대함과 이국적인 느낌을 담으려고 했다는 유래가 전해집니다.

한일관계의 악화, 팬데믹, 그리고 일본의 쇠국 정책으로 인해 국경이 봉쇄된 상황에서도 2021 년 2020 도쿄 올림픽은 열렸습니다. 세계의 평화와 화합이라는 이상을 파는 올림픽이라는 쇼핑몰은 아마존 쇼핑몰과 마찬가지로 문을 닫지 않습니다. 최근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은 베이징 올림픽을 외교적 이유로 미국의 참가를 보이콧 할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올림픽은 분명 문화와 스포츠를 교류한다는 것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보면 미지의, 가장 먼 세계, 지구의 마지막 희망으로 여겨지는 아마존의 이미지부터, 올림픽이라는 ‘국제 교류’ 행사의 이미지까지, 순진하고 화목한 ‘국제’와 ‘교류’라는 단어에 물음표를 던지는 이번 전시는 반재하, 정유진이 참여한 지난 White Letters 레지던시와 발표(2021.3) 에서 확장된 전시입니다.

White Letters 의 떠나지 못한 삿포로 여정에 온라인으로 참여했던 **반재하, 정유진**, 그 후 새롭게 참여하기로 했던 **김익현(김익현과 현우민)**, 일본에서 참여하는 **미하라 소이치로**, 네덜란드에서 참여하는 **하기와라 루미코**의 작품이 바림, 텐진야마 아트 스페이스에 각각 다른 작품으로 연결되어 전시되어 있으며, 두 기획자 강민형, 오다이 마미가 글을 보았습니다.

비록 두 장소에서 열리는 전시를 둘 다 볼 수는 없지만, 팬데믹 하에 계속 그래왔듯이 저 너머 보이지 않는 전시 풍경을 상상하며 두 전시, 두 개의 먼 세상을 어떻게든 연결지을 수 있는 지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디자인: 반재하

후원: 광주문화재단, 일본 문화청

「From Amazon to Olympic」は札幌市のさっぽろ天神山アートスタジオ、韓国光州市の Barim が共同企画した展示で、12月10日から28日まで2つの場所で同時に開催されます。参加アーティストは、相互に関連をしているものの異なる作品をさっぽろ天神山アートスタジオと Barim それぞれに展示します。だけど、同じアーティストによる2つの展示を同時に観覧することができる人はいないという状況を意識しています。

世の中は止まるのに、世界最大のショッピングモールのアマゾンにより激しく動きます。アマゾンのロゴを眺めると、AとZの間に矢印がおかれています。それは、AからZまですべてを売っているという意味であり、アマゾン川に対する西洋のイメージ、つまりロゴに巨大さとエキゾチックな感じを込めようとしたそうです。

日韓関係の悪化、パンデミック、そして日本政府の入国制限により国境が封鎖された状況でも2020東京オリンピックは2021年に開かれました。オリンピックという世界の平和と協調という理想を売るショッピングモールは、アマゾンショッピングモールと同様に休むことはありませんでした。米国の大統領バイデンは北京オリンピックを外交的な理由でボイコットするかもしれないと言いました。このことから、オリンピックは文化とスポーツで国際交流するという以上の意味を持っているのが明らかでしょう。

アジアから見ると、未知の、そして一番遠い世界であり地球の最後の希望と言われるアマゾン川に対するイメージから、オリンピックという「国際交流」イベントのイメージまで、その上、純粋で睦まじく感じられる「国際」と「交流」という言葉そのものを問う今回の展示は、Barimとさっぽろ天神山アートスタジオの交換アーティスト・イン・レジデンスプログラム「White Letters」の活動成果発表（2021.03）に連関する展示です。

参加アーティストは、旅たつことのできなかった前回の「White Letters」という札幌への旅程にオンラインで参加したバン・ジェハ、ジョン・ユジン、今回新たに参加するはずだったキム・イクヒョン（キム・イクヒョンと玄宇民）、日本からは三原聡一郎とオランダ在住の萩原留美子。札幌と光州の2つの展示では、5名/組のアーティストが異なる作品を展示し、二人のキュレーター、カン・ミンヒョンと小田井真美がテキストを添えます。

もし、ひとつの展示しかみられない、2つの場所で開催されている展示の両方を見ることができなくても、パンデミックの中わたしたちがずっとそうしてきたように、その向こうに見ることのできない展示風景を想像することができる、2つの展示、離れた世界をなんとかつなげるポイントがきっとあるはずです。

ポスター・イメージデザイン：バン・ジェハ

支援：光州文化財団（韓国）、文化庁（日本）



Agency for Cultural Affairs,
Government of Japan

반재하

와갈봉조선범 2_베타테스트

선택지 게임 형식을 취한 <와갈봉조선범 2_베타테스트>는 스토리텔링 게임 형식을 취한 <와갈봉조선범>의 후속 작품이다. <와갈봉조선범>에서 관객은 실종된 엄마가 남파 간첩이었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밝혀낸다. 이번 작품에서 작가는 탈남(월북)브로커로 등장해, 주인공이 엄마를 찾아 북으로 향하는 여정으로 관객들을 안내한다. <와갈봉조선범 2_베타테스트>는 남한의 관객과 일본의 관객에게 각각 다른 위치를 부여하며 분단에 얽힌 영토의 존재 방식을 탐색한다. 남한 영토 내 관객들은 <와갈봉조선범 2_베타테스트>를 직접 플레이할 수 있지만 자신의 위치는 파악하지 못한다. 반면 일본 영토 내 관객들은 <와갈봉조선범 2_베타테스트>를 플레이하는 전체 모습을 조망할 수 있지만 자신이 직접 플레이하지 못한다. 이는 남한과 일본의 관객 혹은 국민들이 실제 분단과 관계 맺는 방식에 대한 수행적 질문이다.

※

와갈봉조선범: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38924>

バン・ジェハ

臥碕峰 (ワガル峰) 朝鮮虎 2 _ ベータテスト

選択肢ゲーム形式をとった「臥碕峰朝鮮虎 2_ベータテスト」は、ストーリーテリングゲーム形式をとった「臥碕峰朝鮮虎」の後継作品である。「臥碕峰朝鮮虎」で観客は行方不明になった母親が北朝鮮の工作員スパイであり、再び北朝鮮に戻ったという事実を明らかにする。今作でアーティストは脱南(ウォルブク)ブローカーとして登場し、主人公が母を訪ね、北に向かう旅程に観客を案内する。「臥碕峰朝鮮虎 2_ベータテスト」は、韓国の観客と日本の観客にそれぞれ異なる位置を与え、分断に絡み合った領土の存在方式を探索する。韓国の領土内の観客は「臥碕峰朝鮮虎 2_ベータテスト」を直接プレイすることができるが、自分の位置は把握できない。一方、日本の領土内の観客は「臥碕峰朝鮮虎 2_ベータテスト」をプレイする全体のシーンを眺めることができるが、直接プレイはできない。これは、韓国と日本の観客、または国民が実際の分断と関係する方法に対する遂行的な質問である。

アーティスト・web サイト : <https://banjaeha.com/>

정유진

White Ride 눈조각 (광주)

White Ride 눈조각 유닛 (삿포르)

2021 년 눈축제가 취소되고 어쨌든 이 재난을 뚫고 삿포르에 갈 수 있기를 하염없이 기다렸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국경은 계속해서 막혀있고, 오로지 무착륙 비행기만이 한국과 일본의 하늘을 빙글빙글 돌고있다. 일본 땅을 밟지 못하지만 일본의 하늘은 얼마든지 보고 제자리인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

한국 광주에는 무착륙 비행 루트로 만든 트랙 눈조각을, 일본 삿포르에는 눈을 깎기전 (어떤 루트도 될 수 있는, 하지만 되지 못하는) 네모 상태의 조각을, 하늘에서 밟을 수 없는 땅으로 내려보낸다.

ジョン・ユジン

White Ride 雪像 ユニット (札幌)

White Ride 雪像 (光州)

2021 年雪まつりがキャンセルになり、何とかこの災難を突き抜けて札幌に行くことができるのをとめどなく待った。しかし、見えないウイルスで国境はずっと閉じられ、ひたすら無着陸飛行機だけが韓国と日本の空をぐるぐる回っている。日本の土地を踏むことはできないが、日本の空はいっぱい見て、また韓国に戻ることができる。

韓国光州には、無着陸飛行ルートで作ったトラックの雪像を、日本札幌には雪を削る前の (どんなルートにもなれるけど、なれない) 四角い状態の雪像を、踏むことのできない土地に、空から送り出す。

※ 無着陸飛行とは、飛行機の離陸後、上空を旋回してから出発地に戻る方式で、コロナ禍旅行気分を味わえるうえ免税品のショッピングも楽しめることから人気。

プロフィール：1995 年生まれ。韓国芸術総合学校造形芸術コース在籍（修士）。東京藝術大学大学院の彫刻科に交換留学。メディアによって得られる情報とイメージ、漫画の世界観から、今日における災害・災難を表現する。迷信や物語が想像・イメージ化(imagination)を経て、如何にして生み出されているかに注目し、インスタレーション、映像などに展開する。そこでイメージ化された対象は、未来の空想として映るのか。あるいは想像の顕在化なのか。主な個展に『海賊版未来+人間百害無益ガーデン』（アートソングセンター）、『せめて、現実らしく』（画廊跡地）。グループ展『海流瓶』（AVP lab）、『韓国からの 8 人』（パーブルームギャラリー）、『YourSearch, Ondemand Research Service』（Doosan Gallery Seoul）、など。（SOC0101/Exhibition:2021.07.22_web サイトより転載）

김익현과 현우민

오래된 기술: 핸드 인터넷

이번에 전시하는 작품은 김익현과 현우민이 광케이블을 매개로 제작한 <오래된 기술: 핸드 인터넷>의 새로운 시리즈다. 사람은 '핸드폰'을 사용할 때 '여기가 아닌 어딘가'에 연결해 눈앞의 상황에서 스스로를 제거한다. 우리(김익현과 현우민)는 각각의 현재 장소에서 핸드폰으로 이미지를 촬영하여, '여기가 아닌 어딘가'에 접속하려 했다. 촬영한 이미지를 다시 보면 우리의 손은 한때 누군가가 만졌던 곳에 접하고 있다. 거기에는 타인의 흔적이라는 과거의 적층이 있어, 그것을 접할 수 있는 것은 “그 때 그 자리”일 뿐이다. 애초에 교환 불가능한 접촉을 촬영하고 여기가 아닌 어딘가에 접속하려 하는 <핸드 인터넷>은 그 불가능성의 자각을 통해 “우리는 떨어져있다” 라고 하는 거리감을 되찾기 위한 프로젝트일지도 모른다.

※이 사진 연작은 <우리는 바다에서 왔다 2 - 지도 위 수많은 축>(2021, 기획: 김익현, 이미지)의 커미션으로 제작된 바 있다. <From Amazon to Olympic>(2021, 기획: 바림, 삿포로 텐진야마 아트 스튜디오) 전시에서는 기존의 사진 연작이 다루는 문제의식을 구현와 매뉴얼로 나누어 두 장소(바림-광주, 텐진야마-삿포로)에 각각 전시한다.

キム・イクヒョンと玄 宇民

古い技術：ハンド・インターネット

今回展示する作品は、キム・イクヒョンと玄宇民が光ケーブルを媒介に製作した「古い技術：ハンドインターネット」の新しいシリーズである。人は「ハンドフォン」を使っている時「ここではないどこか」に接続し、目の前の状況から自分自身を取り除いている。我々（キム・イクヒョンと玄宇民）はそれぞれの現在地からハンドフォンによるイメージを撮影することで「ここではないどこか」に接続することを試みた。撮影したイメージに改めて注目すると、我々の手はかつて誰かが触れた場所に触れている。そこには他者の痕跡という過去の積層があり、それに触れることができるのは「その時その場」でしかない。そうした本来は交換不可能な接触を撮影し、ここではないどこかに接続しようとした「ハンド・インターネット」は、その不可能性を自覚することで「我々は隔たっている」という距離感を取り戻すためのプロジェクトであるのかもしれない。

※この写真シリーズは <われわれは海から来た 2 - A Few In Many Places>(2021、キム・イクヒョン、イ・ミジ企画) のコミッションで制作された。<From Amazon to Olympic>(2021、Barim、さっぽろ天神山アートスタジオ企画) の展示では、既存の写真シリーズが扱う問題意識を具現化とマニュアルで分け、二つの場所に (Barim-光州、さっぽろ天神山アートスタジオ-札幌) にそれぞれ展示する。

キム・イクヒョンと玄 宇民について：

キム・イクヒョンと玄宇民は 2020 年のパンデミック下にオンライン上で初対面を果たし、イメージを交換することから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開始した。彼らは実際には会わないまま、光ケーブルを媒体に二つの作品を共同制作した。彼らは、撮影したイメージから見えるものを見直すというオールドスクールな手法をとる。そして、古い技術の世界と光ケーブルネットワークで構築された世界が重なる所を問題として扱う。

キム・イクヒョン

GIM Ikhyun delves deep into the parallax between what exists and being visible, and past and present, and further speculate it through the practice of photography and writing. He recalls, imagines and scrutinizes the connection and the rupture that have been made by a world drawn with Mercator's projection, undersea fiber-optic cables, a world of nanometers and the Global Value Chain. GIM has participated in SeMA Biennale: Mediacity Seoul 2016, (Seoul Museum of Art, Seoul, 2016), PUSH, PULL, DRAG (Platform-L, Seoul, 2016), A SNOWFLAKE, (Kukje Gallery, Seoul, 2017) among other group exhibitions. He also curates and organizes photography exhibitions. Between 2014 and 2016, he was running an art space called Nowhere in Seoul supporting photographic practices. (from the website of OPEN-STATION.org)

玄 宇民

1985 年東京生まれ。生まれた地を離れた人々のありようと移動の記憶、マイグレーションをテーマに映像作品を制作。主な作品に『NO PLACE LIKE HOMELAND』(2011)、『OHAMANA』(2015)、『未完の旅路への旅』(2017)、『逃島記』(2019-) など。2016 年以降ソウル独立映画祭(韓国)、Taiwan International Video Art Exhibition(台湾)、韓国国立現代美術館などで作品展示・上映。東京大学文学部美学芸術学専修卒業。東京藝術大学大学院映像研究科メディア映像専攻修士、同博士後期課程修了。

woominhyun.com

현우민

영상 작가, 아티스트. 1985 년 도쿄 출생. 태어난 땅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과 이동의 기억, 마이그레이션을 테마로 영상 작품을 제작. 주요 작품으로 <NO PLACE LIKE HOMELAND> (2011), <OHAMANA> (2015), <미완의 여행길로 떠나다> (2017) 등이 있다. 홍콩의 외딴 섬, 한국의 제주도에서 시작하는 프로젝트 <도도기> 를 2018 년부터 진행 중. 서울독립영화제, Taiwan International Video Art Exhibition, 국립현대미술관 등에서 작품 상영. 동경대학 문학부 미학 예술학 전공 졸업. 동경예술대학 영상연구과 미디어영상 석사 과정, 박사 후기 과정 수료.

woominhyun.com

萩原 留美子 Hagiwara Rumiko

Big in Japan (光州)

Big in Japan(광주)

オランダの Dutch Central Bank がアーティストを指名して特別なコインのデザインを募集した。特別なコインは、日本人以外で初めてオリンピック大会で金メダルを獲得したオランダの柔道家アントン・ヘーシンの偉大な功績を称えるための記念コインである。アーティストは最終候補デザインに選ばれたのだが、勝者のいない戦いを表現した彼女のデザインは Dutch Central Bank を喜ばせることはなかったようだ。しかし、このことが幸いして、この展覧会に合わせてコインが世の中にお披露目されることになった。

作品は、日本の柔道がスポーツへと変化をとげたことと、スポーツになる以前の柔道の真髓が伝播されて保存されていたブラジルでの柔道ストーリーを絡めたプロジェクトに展開する試みのワークインプログレスである。なぜなら、このプロジェクトのリサーチのために滞在中だったブラジルのレジデンスをパンデミックのために到着早々切り上げて帰国するほかなかったから。ブラジルでのレジデンス再開をアーティストは待っている。

パンデミックは戦争だと表現する国家元首がちらほらいた。この戦いの勝者はいったいだれ？

네덜란드의 중앙은행은 작가를 지명하여 특별한 동전을 디자인해달라고 했다. 특별한 동전은 네덜란드의 유도가 안톤 헤싱크 - 처음으로 일본인이 아닌 선수로서 올림픽 대회에서 유도 금메달을 땀었던 - 의 위대한 공적을 기리기 위한 기념 주화이다. 최종 후보 디자인으로 선정되었지만, 승자가 없는 싸움을 표현한 그녀의 디자인은 중앙은행을 만족시키지 못한 듯하다. 그러나 오히려 다행스럽게도, 이 전시에 맞춰 동전을 세상에 선보이게 되었다.

이 작품은 현재 진행 중인 작업으로 일본의 유도가 스포츠로 변모하여 자리 잡은 이야기와 스포츠가 되기 이전의 유도의 본질이 전수되어 남아있던 브라질의 이야기를 엮은 것이다. 아직 진행 중인 이유는 이 프로젝트의 리서치를 위해 브라질의 레지던스에서 체류 중이었는데 팬데믹 때문에 도착하자마자 다시 귀국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브라질에서 다시 레지던스를 할 수 있기를, 작가는 기다리고 있다.

몇몇 국가 원수들은 팬데믹은 전쟁이라고 표현했다. 이 싸움의 승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Literature Only

目の前に、しかも何時間にも渡ってかなり強めの指示をつきつけられたらどんな心境だろうか。母国語じゃないから？語気の強さにうっかりと圧倒されてしまう。英語レベルが低いから？と一瞬自分を責める。知的じゃない自分になぜかがっかりする。なんだか割りに合わない「文学専用」。

※「Literature Only」とは、航空機、列車のシートポケットにある断り書きの定型フレーズで「パンフレットやチラシなど（重さの少ない）印刷物専用」という意味。

바로 눈앞에, 그것도 몇 시간에 걸쳐 꽤 강력한 지시문을 붙여 놓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 모국어가 아니니까? 말의 힘에 강하게 압도된다. 영어 수준이 낮으니까? 라고 순간 자기 자신을 탓해본다. 지적이지 않은 자신에게 알 수 없는 이유로 실망한다. 웬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문학 전용” (Literature Only).

※Literature Only란 항공기나 열차의 자리 앞에 있는 주머니에 적힌 안내 사인의 전형적인 문구로 “팜플렛, 브로슈어와 같이 무겁지 않은 인쇄물 전용”이라는 뜻이다.

I want to be a shell / 私は貝になりたい (札幌)

I want to be a shell / 나는 조개가 되고 싶다 (삿포로)

交換留学でオランダに渡り、以降アムステルダムを拠点に活動を継続するアーティストは、異文化（西洋）にいる自分（東洋人）を意識的に作品にしている。興味深いのは、その意識はシンプルな二項対立構造ではないという点である。私たちの現在、大量のイメージと大量の妄想が織りなすこの作品の私の貝のモノローグのごとく、自分の、ではない事情に翻弄されてどこにも落ち着かないままだ。だが、着地できないかわりが着地しないという、ただ空をおよいでいるような自由もはらんでいる。

作品の中で「私の貝」は、特定の場所に着地しないことで日本、オランダを経由して韓国に触れまた日本にも舞い戻り、情緒の海に沈み込みながらしんみりと私たちの心をいぬく。

2019年に発表された本作は、この企画のために再構成されて展示される。

교환학생으로 네덜란드에 건너가, 이후 암스테르담을 거점으로 활동을 계속하는 작가는 다른 문화권(서양)에 있는 자신(동양인)을 의식하며 작품을 제작한다. 흥미로운 점은 그 의식이 단순한 이항 대립의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다. 대량의 이미지와 대량의 망상이 만들어내는 이 작품의 “나의 조개”의 모놀로그와 같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정에 주락퍼락 당하여 어디에도 자리잡을 수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착지할 수 없는 대신, 착지하지 않는 자유도 있다.

“나의 조개”는 특정 장소에 착지하지 않고, 일본, 네덜란드를 경유해 한국에 스쳤다가 또 일본에 되돌아가, 정서의 바다에 침몰하면서 차분하게 마음을 관통한다.

2019 년에 발표된 이 작품은 이번에 재구성되어 전시된다.

◇プロフィール

萩原留美子/Rumiko Hagiwara 1979 年、群馬県生まれ。東京造形大学卒業後に渡蘭、ライクスアカデミー・アーティスト・イン・レジデンス（オランダ）を終了後、現在もアムステルダムを拠点に活動している。萩原の作品制作は、日常生活で見かけられるありふれた物事や不合理をあえて強調することや、偶然的に遭遇した物事を素材にすることによって、構成されている。また、日本人としてヨーロッパに身を置く上での経験から生まれる疑問や文化の差異が、多々題材にされる。これらの日常への介入行為は、多様なフォーマット、写真、ビデオ、インスタレーション、パフォーマンスで作品化され、微妙な、そして時に遊び心のある詩的表現へ変換される。近年のグループ展に、「The Botanical Revolution」(2021 年、ユトレヒト・セントラル美術館、オランダ)「Elsewheres within here」(2019 年、Framer Framed、アムステルダム/オランダ)などがある。 <http://rumikohagiwara.com/>

三原 聡一郎 Mihara Soichiro

空気の交感

공기의 교감

展示されているのは空気です。光州には札幌の空気、札幌には光州の空気が、それぞれの国のスーパーマーケットや商店、ネット、もちろん amazon も使った(!)で購入されたジップ付きのプラスチック保存袋に入って運ばれた。

展覧会の会期中、1日に1度、ひとつの袋から空気を外に出す、クリスマスを待つアドベントカレンダーのように。

発送申し込み、空輸される航空機の貨物室でのコントロール、EMSのスマートな追跡機能、そもそも展覧会について、作品についてキュレーター、アーティストとのやりとりに使われるインターネットと、一から十までテクノロジー依存である私たちの世界を賢く活用して、アーティストのアイデアは展示作品になるようにしている。ただ活用する前提に、お互いがほんとうに空気をジップ袋につめる正直さが必要だった。我々が良心的になるしかないという空気をアーティストは出してきた。みながその空気に乗ったのだ。(作品は成立しました)

目には見えないなにかをあなたは感じることができるだろうか? いや、信じることができるだろうか。「なにか感じるかも」と思う必要はない。それとも、全身をセンサーにして徹底的に空気を読んでみるのも悪くないかも、せっかくなんで。

공기가 전시되어있다. 광주에는 삿포로의 공기, 삿포로에는 광주의 공기가, 각 나라의 슈퍼나 상점, 인터넷, (물론 amazon 도 사용했다!) 에서 구매한 지퍼백에 담겨 운송되었다.

전시 기간 동안 하루에 한 번, 지퍼백에서 공기를 꺼낸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어드벤처 캘린더 처럼.

발송 접수, 운송 항공기 화물실에서의 제어, EMS 스마트 추적 기능, 원래도 전시와 작품에 대해 큐레이터, 작가와 소통하는데 사용하는 인터넷, 1에서 10까지 기술에 의존하는 우리의 세계를 현명하게 활용하여, 작가의 아이디어는 전시 작품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 활용의 전제에는 서로가 정말로 공기를 지퍼백에 넣는다는 정직함이 필요했다. 작가는 양심적이어야 한다는 공기(분위기)를 내놓았다. 모두가 그 공기(분위기)에 맞장구를 쳤다. (작품 완성)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느낄 수 있을까? 아니, 믿을 수 있을까. “무언가를 느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아니면 몸 전체를 센서로 만들어 철저히 공기를 읽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지도 모른다. 모처럼이니까.

◇プロフィール

三原 聡一郎 / アーティスト

世界に対して開かれたシステムを提示し、音、泡、放射線、虹、微生物、苔、気流、土、水そして電子など、物質や現象の「芸術」への読みかえを試みている。2011 年より、テクノロジーと社会の関係性を考察する「空白のプロジェクト」を国内外で展開。2013 年より滞在制作を継続的に行い、北極圏から熱帯雨林、軍事境界からバイオアトラボまで、芸術の中心から極限環境に至るまで、これまでに計 8 カ国 12 箇所を渡ってきた。

主な個展に「空白に満ちた世界」（クンストラウム・クロイツベルク／ベタニエン, ドイツ, 2013／京都芸術センター, 2016）、グループ展に、第 11 回恵比寿映像祭（東京都写真美術館, 2019）、札幌国際芸術祭 2014（芸術の森有島旧邸, 2014）、「サウンドアート——芸術の方法としての音」（ZKM, ドイツ, 2012）など。展覧会キュレーションに「空白より感得する」（瑞雲庵, 2018）。共著に「触楽入門」（朝日出版社, 2016）。アルス・エレクトロニカ、トランスメディアーレ、文化庁メディア芸術祭、他で受賞。リアルスエレクトロニカ 2019 審査員。NISSAN ART AWARD2020 ファイナリスト。また、方法論の確立していない音響彫刻やメディアアート作品の保存修復にも近年携わっている。

<http://mhrr.jp/>